

“도심 절 어린이 놀이터 있는 공원이어야”

길상사 자문위원 김종서 박사

“길상사가 생기기 전에 법정 스님이 친분도 없던 내게 ‘도심에서 사찰’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동아일보사 총정호 사옥 강당에서 오륙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했어요.”
 덕성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낸 길상사 자문위원 원성원(元成源) 김중서 박사(89) 첫 마디였다. 길상사를 열기에 앞서 ‘도심 절 살림이 어찌해야하는지?’를 고민했던 법정 스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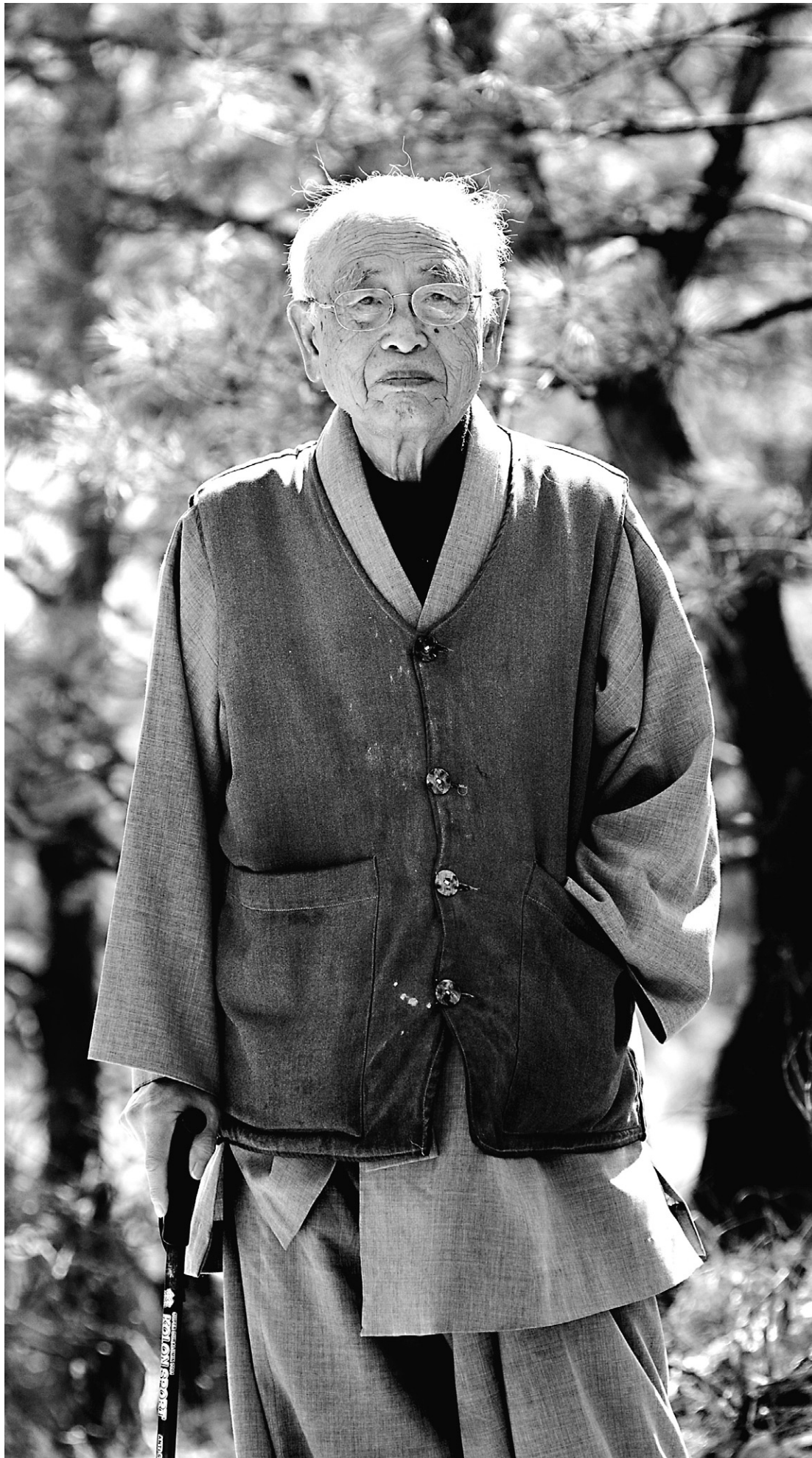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불교학생 지도교수였던 김중서 박사는 불자학생들과 송광사 수련대회를 갔을 때 법정 스님을 처음 만났다. “그때 법정 스님한테 처음 얘기를 들었지요.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땅을 떠나 일어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마음이 미하여 가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사람은 중생이요, 한마음을 깨달아 가없는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이는 부처이다. 어리석음과 깨달음은 다르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말미암았으니, 마음을 떠나 부처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노보 조지불 스님(禪宗正覺大師)의 말씀이 마음에 깊숙이 새겨져 있다.”

“스님들은 수행에 전념하고 절살림 재가불자에게 맡겨라 누구나 부담없이 올 수 있게 가난한 절 만들라” 법정 스님 뜻

을 이어가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었지요.”

도심에 있는 절은 어떻게 할까? “내가 늘 하는 주장이 있어요. ‘모든 사찰이 불자든 아니든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 할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절은 보살들이 애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지금 절에 오는 신도들도 대개 어렸을 때 할머니나 어머니 손 붙들고 절에 오간 추억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절이 공원이 되어야 누구나 부담 없이 드나들고, 놀이터가 있어야 어린이들이 부모한테 절에 가고 조르게 되지요.”

1997년, 맑고 향기롭게 이사였던 출판사 ‘동쪽나라’ 김형균 대표가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중서 박사에게 전화를 했다. 법정 스님이 절을 마련하고 자문위원을 구하는데 되도록 절밭을 덜 먹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 박사님께서



법정 스님은 1997년 당시 대통령 자문교육개혁위원회 위원이던 김중서 박사에게 길상사 자문위원을 맡겼다. 김박사는 98년 길상선원에 입방해서 지금까지 거르지 않고 참선을 하고 있다.

길상사 자문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기꺼운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길상사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한정식 집에서 법정 스님한테 여러 번 식사대접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법정 스님 옆에 내가 앉았는데 고기를 다 나한테 주셨어요. 철저하게 계를 지키는 분입니다. 나는 법정 스님 책을 읽고 문필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스님을 가운데 그렇게 글 잘 쓰는 분이 없어요. 사람 속으로 스며들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법정 스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법정 스님은 불교를 널리 퍼는데 가장 으뜸가는 분이세요. 포교에서 법정 스님을 따라가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법정 스님 같이 계를 철저히 지키는 스님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해요. 스님들이 계를 잘 지켜서 소문이 널리 퍼지면 불교 격이 높아지고 융성해지지 않겠어요.”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꼭 불교가 융성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도덕성 높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기독교나 천주교도 불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스님들은 가정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는 데가 없어서 도덕성 높은 생활을 하기가 가장 좋다고 봐요. 천주교 신부들도 가정이 없지만,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목사나 신부를 성직자라고 하거든요. 성직은 직업이란 말인데 스님이 직업입니까? 아닙니까.”

법정 스님, 포교에 으뜸가는 분
 도덕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를 잘 지키는 스님들 계속 나와야
 불교 격이 높아지고 융성한다

다. 스님들은 수도를 하는 수행자이지요. 그렇기에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균형 잡힌 시각을 지켜가며 수도를 하고 수행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새겨져야 할 말씀이다. 그런 관점에서 불교에 개혁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다고 본다. “스님들이 신도 속으로 들어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스님들은 왜 공양을 따로 합니까? 신도들과 같이 해야지. 그리고 법당에 스님들이 드나드는 문이 왜 따로 있습니까? 스님과 속인이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동체사상이 부처님 가르침이요. 무엇보다 법정 스님은 신도 곁으로 다가오는 문을 활짝 연 분이십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열심한 한 분이 없어요. 불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스님이 돌아가신 뒤에 스님이 어떤 분이냐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길상사는 관광지가 되었어요. 빗장열고 팔을 벌리고 사람 속으로 뛰어들 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훌륭한 일이에요. 여기서 하루도 주무시지 않았는데 그 점도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음악도 사찰 냄새, 불교 냄새가 나지 않는 음악을 골라 틀러는 말씀을 하

셨던 법정 스님이 길상사에 머무셨더라면 이곳이 시민에게 더 다가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서울 시내에 이만한 곳이 드문데도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길상사를 열 때 법정 스님은 스님들은 수행에 전념하고 재가불자들이 절 살림을 책임지라고 했다. “법정 스님은 자신이 돈을 만지지 않고, 돈이 생기면 남에게 그냥 주고, 누구에게 왔는지 기록도 하지 않았던 분이니까. 처음에 스님들이 돈을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일체, 그런데 스님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반란이라던 우습지만, 재가자들에게 살림을 맡기면 잘못될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느냐면서 스님들이 살림을 맡았어요. 그리고 법정 스님은 절이니까 하는 수 없이 재(齋)를 지낼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흐르다보니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재가 중심이 되어있어요. 또 가난한 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무 부담 없이 왔으면 좋다고 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나 봐요.”

김중서 박사는 길상사가 1997년 12월 14일에 문을 연 이듬해 봄 1998년 3월 1일 길상선원에 입방해서 이제까지 거르지 않고 꾸준히 참선을 하고 있다. “98년 2월 28일까지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끝나자마자 삼월 초하룻날 이리 들어왔지요. 그즈음 어떤 대학에서 이사장으로 오라고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리 가쁜 참선을 못하잖아요. 법정 스님이 길상사에 오시면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에 가시느라고 이 선원 앞을 수없이 오르내리셨는데도 선방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스님도 참선을 많이 하셨는데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았으련만. 허허.” 아마 참선을 하는 분들에게 행여 방해가 될세라 발뒤꿈치를 들고 조심조심 선원 앞을 지나가셨으리라.

8.15 광복을 맞았을 때 대학생이던 김중서. 광복을 맞은 기쁨도 잠시, 날이 갈수록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공허함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광복된 지 보름이 지난 9월 초하루 오대산 상원사로 방한한 스님을 찾았다. 한암 스님은 나라가 해방이 되어 젊은이들이 할 일이 많은데 어쩌서 산에 들어왔느냐며 당장 내려가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나 그 말씀에 더욱 매료되어 간곡하게 가르침을 구하는 청년 김중서를 내치지 않았다. “한암 스님이 법명을 지어주셨어요. 원성이라고, 동글 원(圓)자 이불 성(成)자. 계승도 함께 써주셨는데 6.25 때 없어지고 말았어요. 한암 스님이 오면 평소 차림 그대로 맞았지만, 신도들이 오는 눈치에 보이면 바로 장삼을 입으시고 신도에게 먼저 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인은 다르구나 생각했어요.” 이 말씀 끝에 2003년 길상사 법정 스님 법회가 떠올랐다. 청법가가 끝나고 법상으로 오르셔야 할, 스님이 눈을 지그시 감은 채로 그냥 서 계셨다. ‘못 들어오셨나?’ 잠시 시간이 흘러도 스님은 오지부동. ‘왜 그러시나?’ 어리둥절해하던 사찰에는 바로 앞선 법회에 절을 받는 일이 부끄럽다하신 스님 말씀을 떠올리곤 대중을 앉히고 입정에 들게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더라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겹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신앙, 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판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다라니 福 지갑

평생부자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사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사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안쪽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스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묶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돼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제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집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림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45,000원 (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몇해전까지 김상사에서 '가정에서 자녀교육'이란 주제로 강의하던 김중서 박사.

했다. 죽비 삼심으로 입장을 마치자 스님은 그제야 법상에 오르셨다. 스님은 절을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대중들은 스님께 절을 올려야 하는 상황. 사회자들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어쩐다?' 궁리 끝에 사회자는 자리가 비좁아 앉은 자리에서 합장 반배로 삼배를 올리겠다고 웅색하게 말했다. 스님도 선 자리에서 합장 반배로 삼배를 했다. 맞절. 그 뒤로 맞절을 하는 법회가 이어졌다.

김중서 박사가 불교를 처음 만나기는 해방을 맞은 해였지만, 참선은 이화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로 학교를 옮긴 1965년부터 시작했다. "아침마다 한 시간씩 참선을 했어요. 그러다 김상선원에 들어온 뒤로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참선을 하지요. 오래도록 참선을 해도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 다리 아픈 건 좀 탈해요. 달라진 것이라면 얘기를 하면 한 시간 길이가 상당히 길게 느껴지는데 참선만 하면 금세야 금세! 참선은 시간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쁠수록 참선을 해야 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참선을 하면 바로 풀려요. 마음을 비우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오랜 세월 이른 아침에 한 시간 반을 걷고 참선을 하는 김중서 박사 미수米壽를 넘긴 어른답지 않게 목소리가 카랑카랑하다.

'학교교육만이 교육이라고 여기는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김중서 박사는 자녀를 교육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아이들이 제 스스로 크지, 부모가 키울 수는 없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크는 걸 도울 수 있을 뿐이지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나도 애들이 넷이 있는데 개들을 교육하지 않았습니디. 크는 것을 도왔을 따름이지. 내가 애들보다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애들을 교육한다고 생각하면 도리어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생긴 그대로 크는 겁니다. 개네들이 뭘 붙잡으려고

애들이 넷이 있는데 교육하지 않았다 여름이면 애들을 발가벗겨서 키웠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 노랑머리로 염색 머리에 물 들이고 말고는 문제가 아냐

애를 쓰는데도 붙잡지 못하면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집안에서 마음대로 뛰어놀게 해야 해요. 어린애들이 부숴 봤자 얼마나 부수겠어요. 귀중한 물건은 애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올려놓고 애들을 풀어놔야 해요. 마음대로 풀어놓으면 마구 때려 부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제풀에 시들해져서 하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잘못하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마음에 드는 것을 하면 도와주고 칭찬해주며 부추겨줘요. 저희들이 스스로 느끼게끔."

자녀들 생각은 어떻게? "야단 한 마디 친 일이 없는데도 개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는 우리를 완전히 풀어놓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풍뎡이 묶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를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차라리 잘못했다고 야단이라도 치면 반발이라도 할 텐데, 말없는 압력이 더 견디기 어려웠으리다.

당신을 자연주의자라고 일컫는 김중서 박사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발가벗겨서 키웠다. "옛날에 시골 사범학교 선생을 했는데 우리 애들을 여름만 되면 옷을 하나도 입히지 않고 발가벗겨서 키웠어요. 첫째가 딸아이인데 발가벗겨서 키웠더니 동네사람들이 욕을 해요. 욕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

대로 소신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김중서 박사는 '조물주 손을 떠날 때는 만물이 모두 선하였으나 사람 손에 들어오자 만물이 타락한다.'는 루소 교육서 <에밀> 첫 구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람들 본바탕은 본디 착하고 훌륭한데 어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간섭을 하기 때문에 나빠진다고 말씀한다. "난 너희들이 공부를 잘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말을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을 학원에 보낸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데 왜 보냅니까?" 풀어놓음 때문일까? 동국대학 불교학과 교수로 있는 둘째 아들 김성철 님은 치과의사를 15년이나 하다가 평생 다른 사람 이빨만 들여다보고 살겠느냐며 의사 길을 접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동국대학원에 가서 석·박사를 마치고 불교학과 교수가 되는 새 길을 열었다.

김성철 교수를 비롯한 네 남매가 모두 대학교수인데, 자연주의 교육 힘도 크겠지만, 타고난 유전자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닐까? 김중서 박사는 '유전자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환경과 유전 가운데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한다. 그 말씀을 뒷받침할 연구 결과가 있다.

23대째 범죄자를 만들어 낸 집안에 일관성쌍둥이가 태어났다. 그 가운데 한 명만 좋은 집안에 양자로 입양됐다. 범죄자 집안에서 계속 자란 아이는 범죄자가 되었지만, 양자로 입양된 아이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다. - <생각, 엮고 허물고 뒤집어라>에서.

손자들에게는 무슨 말을 할까? "나는 손자들한테 이래라저래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부모들을 제대로 교육을 했을 것 같으면 손자교육이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한 번은 손자 녀석이 대학에 가는데 하실 말씀이 없느냐고 묻기에 뭐든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그랬더니 머리에 물을 노랑게 들이고 왔어요. 물들이고 들이지 않고는 문제가 아니다. 머리 물들이고 일을 잘했다고도, 잘못했다고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네 생각대로 했으니 그럴수록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 해야 한다고 했어요. '뭘 잘하면 됩니까?' 묻기에 난 얘기 하지 않겠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해 봐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그랬어요." 길모습보다 자기 성찰을 해서 자아실현을 이루는 일이 참 값이 많은 말씀이다.

몇 해 전까지 김상사 불교기초교리강좌에서 '가정에서 자녀교육'이란 제목으로 자연주의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던 김중서 박사, <금강경오해>에서 아부 스님이 읊은 노래에 나오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린이는 어린이요, 어른은 어른이다'로 풀이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키우지 않고 어른처럼 만들려는 어른들 잘못을 짚는다. 자연 흐름에 맡겨 잘된 일은 부추기고 잘못된 일은 내버려두면, 제 스스로 알아서 길을 찾아간다는 말씀이 이해는 가지만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라도 실천하기 어려운 '착하게 살라'는 말씀 못지않게, 김중서 박사 가르침은 역시 아문에서 나온 <반야의 지혜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에서 만날 수 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가방을 메던 날

지난 주에는 가방을 샀다. 어릴 적에 메던 모양의 가방은 아니지만 그저 기분이 좋았다. 세련미가 더 해달라가 색이 현란해서는 더욱 아니다. 그저 편하고자 산 가방이니까. 여태껏은 한 손에 수대(手袋)를 들고 다니니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고 번갈아 든다 하여도 몸의 균형을 잃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수대를 든 손을 해방시키고 싶은 뜻도 한 때는 담겨 있었기도 했다.

이번에 마련한 가방은 여유를 누릴 것 같다. 수업내용에 따라 가방의 무게가 달라 질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는 누군가를 따라 잡기 위해 될 필요도 없다. 오직 문고방 책 한 두 권 좀 넣으면 족하다. 더 호사를 부린다면 순간의 생각을 담아두기 위한 메모지 정도면 그만이다. 하기가 혹사하는 날도 더러는 있을 법하다. 서점에 들르는 날이다. 그런 날이면 가방의 쓰임새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책의 무게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거꾸 그런 날이 지속되면 풀 먹인 두루마기의 양 어깨에 골이 잡힌다. 그래도 좋다. 원하던 책을 얻었다는 기쁨이 훨씬 앞서기 때문이다.

무엇을 담는다는 것이 어찌 가방 만이라. 주머니도 잊지 않은가. 주머니의 수를 헤아려 보자면 한 두 개가 아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 자녀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비단 쓰임새가 많아서 만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많아 감당해야 하는 일은 부지기수이다.

부자도 되고 싶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고 자신을 이해해 주는 상대도 얻고 싶어 한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되어서야 되어서야 되어서야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기만 바라는 마음도 배눌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무엇이 되어야겠다는 바람은 끝없이 절주하고 있다. 참 힘든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사는 사연을 들어보면 벼라 별 일이 많다. 이러한 일들이 소원 성취가 되도록 정성스레 일주향(一柱香)을 올리고 간절히 기원한다. 아니면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도 기원한다. 소멸보다 얻고자 기원하는 내용이 월등이 많다. 이리하여 성정은 항상 중생의 바람으로 가득 가득 넘쳐난다.

부다가 인생은 고(苦)라고 강조한 연유가 있다.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얻으려 하면 할수록 그 대상은 멀어지는 것이다.

어느 호젓한 산길에 피었다 사라지는 이름 모를 꽃에서 크나큰 배움을 얻게 된다. 그 꽃에게는 고통이 없다. 뭐 하나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웃과 다툼도 없다. 오직 내 모습대로만 살고자 할 뿐이다. 우리는 내가 없다고 하는

무아사상(無我思想)은 교리로운 배워 알고 몸으로 몸소 체득하지는 못하고 있다.

무엇에 매이지 않으면 인생은 고가 아니다. 해탈하고자 한다면 육체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해방이 으뜸이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육체적 해탈이라고 한다. 스트레스나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정신적 해탈을 얻는 것이다. 누군가가 억지로 안겨주지 않은 형용어진 실타래를 지고 끄덕거리며 다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휘황찬란한 달밤이면 잠 못 이루고 도량을 서성거리는 습성이 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동반자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림자다. 그림자마저 신경이 쓰여 어찌하면 떨어지려나하게 할까 궁리하기도 한다. 생각을 몰아가도 별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 아하, 이것이다. 앓는 것이다. 앓으면 형상은 축소되기 마련이고 거기가 누우면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생각이 주는 기쁨 보다 실천에서 얻는 기쁨은 무엇과 비교 할 수 없는 것 들이다.

'무엇되겠다'는 바람 지나쳐 끝없이 얻으려는 것이 고통의 근원 매이지 않는 자유가 곧 해탈

놓는 기쁨은 이래서 좋은가 보다. 놓으면 금세라도 다 무너질 것 같지만 어디 그럴런가. 놓는 것은 행복의 지름길이다. 놓는 것은 건전한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다. 안운이요 상쾌한 산들바람이다.

인왕산은 나의 불보살이다. 등산을 하여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성소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잡다한 생각을 정리하는 곳이기도 하다. 형이상학적인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곳이기 에 무진장이 된다.

가방을 메던 날의 기억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 한 손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것처럼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싶다. 앞으로는 차차 가방의 혹사도 줄이려고 한다. 매미 허물과 같이 가볍게 살면 갈등이나 번뇌가 깃들 곳이 없으리라.

어떤 이는 호사를 부린다. 생전에는 부귀하고 사후에는 문장이라고... 생전에 부귀하지 않아도 할떡거리기 없으면 되지 않을까. 사후에 문장이 방향(芳香)을 잃었다 한들 애잔할 일도 아니다. 글에 생명이 있다면 아무렇게나 굴러도 족지 않고 잘 사는 식물 - 호생지물(好生之物)일 터니까.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컴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출발 확정 상품

- 미얀마 성지순례 : 6일, 7일
5월30일, 6월 1일, 6월 8일,
6월14일, 6월21일, 6월23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 7일
6월 1일, 6월 9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6월23일 **요금문의**
- 인도 성지순례 **9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팀, 호스카 포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여행사 남녀 가이드
견습생 모집

- ◆ 해외 파견 견습생 2명
- ◆ 국내 연수 견습생 2명

서류제출 :
- 여권사진 부착 이력서 1통.
- 자기소개서 1통
- 중단불문 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1통.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명빌딩 303 호
불교성지전문여행사 (주) 마하연 투어
문의 : 02)365-7747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역: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주크

소원성취 인등 및 시리합

고추구 12B 인자구 26E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빠른 접수 10년
불제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 6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요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형)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영사용) 탈들이 방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방)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강

▶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